

[국제]

■北-美 관계정상화 뉴욕회의 5일 개막

테러지원국 제외·경제제재 해제 논의

북한과 미국은 2·13 베이징 합의에 따른 양국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를 5일 오후(한국시각 6일 오전) 뉴욕에서 열어 오랜 적대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회담은 2002년 10월 2차 북한 핵위기 발발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북미간 공식 양자회담일 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미사일·마약 등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 등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향해 가기 위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첫 회의인 만큼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 보다는 향후 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짜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차기 회담과 관련, 장소를 광양으로 정하고 북한이 할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의 방북을 초청할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힐 차관보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북한 측에서는 김 부상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김명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 등 북한 대표단은 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한반도 전문가 등과 비공개 세미나를 가진 뒤 2일 뉴욕으로 이동했으며, 3일 낮 코리아사이터리와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등 한반도 관련 단체가 주최한 비공식 환영오찬에 참석했다.

김 부상은 3일 오후엔 뉴욕의 같은 호텔에 투숙한 천영우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와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엔 미국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다.

향후 회담 의제·일정 짜는데 주안점 둘 듯

미 당국은 김 부상의 샌프란시스코 도착에서부터 뉴욕 이동과 체류에 이르기까지 삼엄한 경호를 펼치며 취재진을 따돌리는 등 이례적인 경호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김 부상 일행은 7일 오전 6박7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연합뉴스

4년5개월만의 양자회담 수교논의 첫 단추

자회담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간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양측 대표단은 5일 뉴욕의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에 들어가 6일까지 비공개 논의를 계속한다.

UNDP, 대북사업 중단

北 김계관 뉴욕 도착 동시 전격 발표

2·13 베이징 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해빙무드에 들어선 가운데 유엔 개발계획(UNDP)이 2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UNDP의 대북사업 중단 발표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방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일행의 뉴욕 도착과 동시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투명성 문제는 대북사업에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유엔 산하기관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UNDP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월25일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북사업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UNDP는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5년~2006년 사업과 2007년~2009년 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들로 앞으로 상황이 변한다면서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의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외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UNDP의 이번 결정은 대북사업 투명성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 이후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화지급 중단과 현지직인 채용 방식 변경 등의 투명성 제고 조치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들은 UNDP의 대북사업 중단 발표가 김 부상 일행의 뉴욕방문에 맞춰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미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왼쪽) 이란 대통령과 사우디 압둘라(오른쪽) 국왕이 3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수니파와 시아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AFP=연합뉴스

“이슬람 종파간 갈등 공동 대처하자”

이란-사우디 정상회담 합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일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사우디 압둘라 국왕은 수니파와 시아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 SPA가 4일 보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라크와 레바논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놓고 시아파와 수니파, 중동의 반미와 친미 세력을 대표하며 예민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란과 사우디간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SPA에 따르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과 양국이 이슬람 세계를 분열하려는 ‘적’의 음모를 좌초시키기 위해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두바이=연합뉴스

그는 또 수니파와 시아파, 반미 성향의 야당과 친미적 집권층으로 갈린 레바논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사우디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이라크 문제에 대해 양 정장은 이라크의 국가적 통합과 독립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국민 간 종파에 관계없는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SPA는 “두 정상이 이슬람 국가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를 확인했으며 이런 시도에 맞서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4일 테헤란으로 돌아온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과 이슬람 세계를 분열하려는 적들의 음모에 대해 의논했다”며 “다행스럽게 양국은 우리의 적들의 위협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고 그들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두바이=연합뉴스



3년만에 ‘개기 월식’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 모습을 감추는 개기 월식이 3년 만에 관측됐다. 지난 3일(현지시각) 스페인 메노르카섬을 비롯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관찰된 이번 월식은 지구 그림자가 달 표면에 드리워지면서부터 완전히 달을 가리기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서도 ‘위안부 논란’ 우려 목소리

아베 총리 “강제성 없다” 발언 파문 확산

아사히 “강제성 해석 차이가 논란 불러”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평가들이 비등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 고위층의 인식은 변한 게 없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한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내달 하순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외무성 등 정부 일각에서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평가들이 비등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야 “일본 정부는 이미 사죄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세코 히로시게 총리 보좌관도 지난 달 하순 방미,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계승이란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막바지 로비전을 전개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한국과 미국이 반발하는 것은 ‘강제성’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제가 된 지난 1일 방미 아베 총리의 발언은 “애초 (고노담화에서) 정의됐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그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성의) 정의가 (협의)에서 ‘광의’로 변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도쿄=연합뉴스

지금까지 현지 로비스트는 물론 정부 관리들까지 현지로 급파돼 결의안 지지 로비에 나서고 있지만 작년 4월 제출됐던 결의안을 지지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하원 의장과 외교 위원장에 낸시 펠로시, 톰 램토스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로비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점들을 들어 이번에는 위안부 결의안의 통과 가능성이

인도 산사태...70여명 사망·실종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에서 장맛비에 따른 산사태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메트로TV는 경찰을 인용, 2일 밤에 플로레스 섬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발 지방에 산사태가 발생해 40여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최소 29명은 실종상태라고 전했다.

또 인근 람바레다 지방에서는 11채의 가족이 주민들과 함께 홍수로 떠내려갔으나 주민피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건부 산하 재난관리센터의 루스 탐 파카야 국장은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중장비 등을 현지로 투입하지 못해 산사태로 매몰된 주민을 구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화선마저 끊겨 정확한 피해 집계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장마철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전국 곳곳에서 많은 비와 함께 산사태, 홍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 는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100명이 숨졌었다. /벵쿨=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 products.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various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방수제' and '드림 다목적 특수 방수제'. The bottom right corner has the logo for '드림코리아 DREAM KOREA'.

Advertisement for 'SELF WINE'. It features a large 'SELF WINE' logo and several smaller images of wine bottles and glasses. Text includes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와인' and '나만의 맛을 찾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곳'.